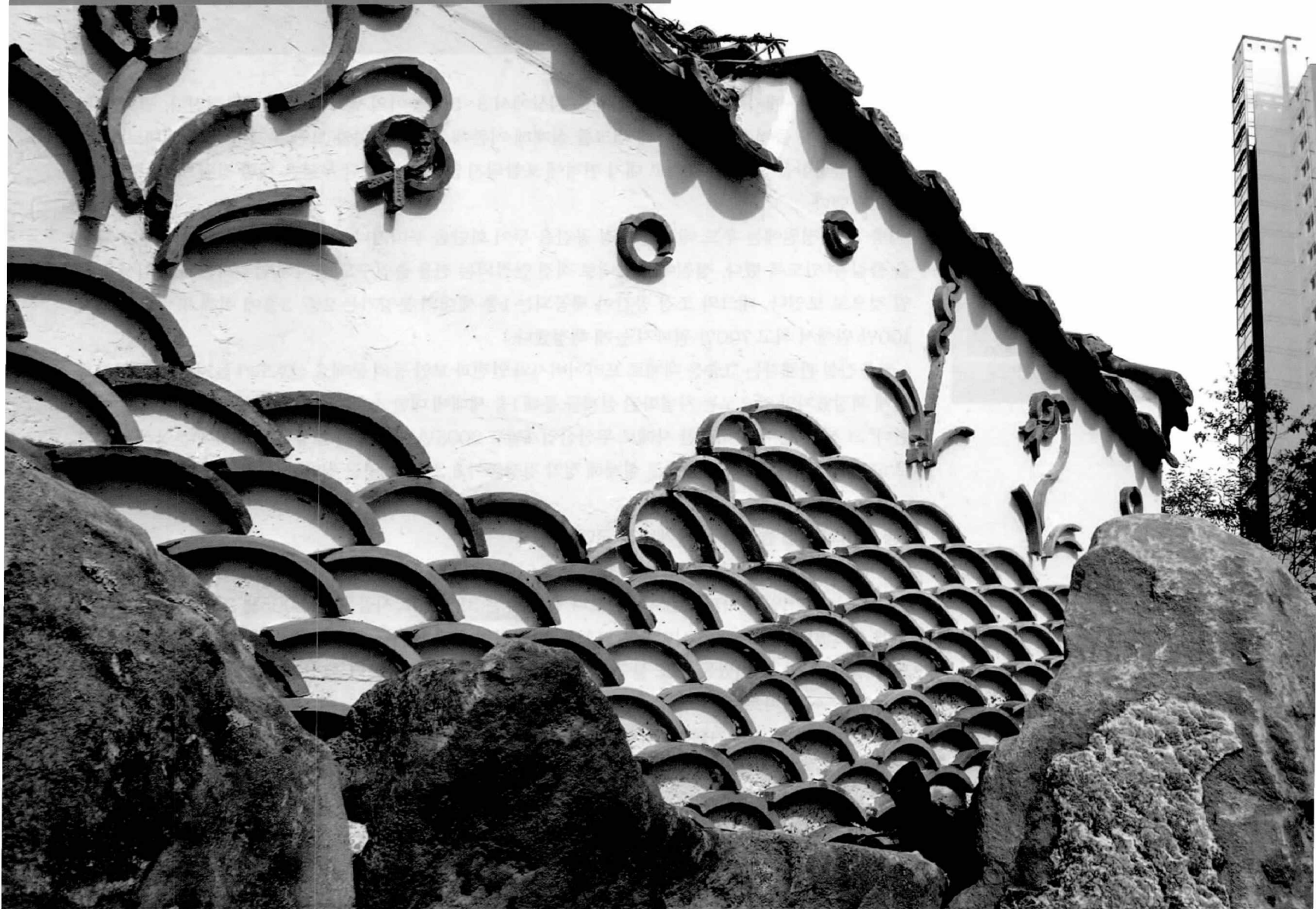


성남 금광동 삼성래미안 환상적인 산책로와 웰빙 라이프의 보금자리

성남 금광동 삼성래미안 102동 2504호에 거주하는 조춘일 씨.
그는 삼성래미안에 입주한 후 이 아파트만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입주 전부터 설레어 잠을 설쳤다고 말하는 그는 현재의 생활에 대해
자신이 다시 태어난 것 같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글 | 조춘일 성남 금광동 삼성래미안 입주민 · 에디터 | 김대한



서울공항 주변과 판교 신도시 개발로 인해 성남 구시가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1개 단지도 아닌 4개 단지(보라, 통보, 동우, 김단)를 하나로 묶는 통합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때를 생각하면, '내 집이 어떻게 지어지려나!' 걱정만 앞섰는데, 국내 최고의 건설 업체인 삼성건설이 래미안(來美安)이라는 아파트로 재건축하니 내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흥분되고 설렘었죠.

웰빙 아파트에 사는 특별한 즐거움

2005년 9월 기다리고 기다리던 입주자 사전 점검 행사 당일, 정말이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군요. 지금은 겨울이라 꽃이며 나뭇잎이며 다 떨어졌지만, 그날엔 꽃, 나무, 돌, 담장 등이 오래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피어 있었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벌써부터 봄이 기다려지네요.

우리 아파트는 자랑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는군요.

남한산성과 김단산 자락에 위치한 우리 아파트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4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거닐며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순환 산책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 동 출입구에서 나와 어느 길로 가든지 산책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어 있어, 저녁 식사 후 아내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거닐 때면 마치 어느 외국의 유명한 공원에 놀러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우리 아파트 옆의 구름다리를 넘어 산성까지 가는 산행길은 이국에 온 듯한 분위기에 젖어들게 합니다. 사실 국내 아파트 단지들의 조경이 그저 바라만 볼 수 있게 해놓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거나 앉아서 쉴 만한 공간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 대부분인데, 우리 단지는 편안하게 앉아 쉬면서 수목들과 더불어 호흡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웰빙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 입구의 느릅나무 길과 도로에 면한 인도를 대신한 단풍나무 길, 감나무, 살구나무 등 유실수가 심어진 과수원 길 등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제대로 된 산림욕을 하고 난 느낌입니다.

집들이 할 때도 친척 분들이나 친구들이 단지 밖으로 나오기 싫겠다며 모두들 부러워하고 한참을 거닐다가 돌아가기도 했답니다.

아이들 교육 여건도 너무 훌륭합니다. 신구대부설유치원, 하원초, 금광중, 대원여중, 바로 옆 송신여중고 등 남고만 빼고 모두 단지 300m 반경 이내에 있습니다. 주위에 유해 시설이 없는 것도 자랑거리죠. 거기에다가 강남이나 잠실, 분당까지의 진입도 자동차로 20~30분 정도면 충분하니, 교통 여건 또한 어느 아파트에 뒤지지 않습니다. 정말 최고의 입지라고 자부합니다.

우리 아파트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산책로와 더불어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우리 단지의 중앙 광장의 초심정(初心井)과 105동 후면에 있는 연못, 폭포, 정자를 묶은 초심정(初心亭)이 산업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해 선정하는 2006년 'Good Design 인증' 을 받았습니니다. 입주민으로서 정말 무한한 영광이자 자랑거리입니다.

초심정은 우물 상부 용(龍)의 입에서 물이 떨어지고 그 물이 수정 공간으로 흘러내려가는 구조인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개천과 강을 따

라 넓은 바다로 이어지는 자연의 윤회 사상을 반영한 형상으로, 특히 오후 2~3시쯤이면 우물 내부에 안개 분수가 피어오르면서 쌍무지개가 나타나 장관을 이루기도 합니다.

특히 바닥을 제주도 한라산 현무암으로, 담장은 백두산 화산석으로 마감해 백두와 한라가 만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물 내부에는 휴게 공간과 더불어 센서가 설치돼 사람이 지나가면 맑은 새소리와 떨어지는 물소리에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곳이죠. 105동 후면에 위치한 초심정은 'ㄱ' 자의 전통 정자가 연못에 걸쳐 있고, 연못의 물이 전통 담장 아래로 흘러내려 이단 폭포인 검돌폭포와 폭포의 물이 100여 m를 흘러내려가는 생태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그 많은 양의 물이 걱정스러웠는데, 알고 보니 지하층 공사 시에 자연 발생한 암반수를 모아 활용하는 것이라는 설명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생태계류에는 다슬기 등이 살고 있고요, 정자 옆에는 약수터가 위치하고 있어 웰빙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 래미안, 성남 최고 아파트로 손색이 없어

운전을 하거나 길을 지나다 보면, 요즘 들어 아파트마다 지붕 구조물이나 경관 조명이 경쟁하듯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타 아파트처럼 철구조물이 아닌 아파트 골조와 일체형



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철구조물은 내구성이 골조에 비해 약해서 녹이나 변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 아파트 수명과 같이 할 수 있는 구조라 마음이 놓이더군요. 근처의 남한산성 성곽의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야간에 조명까지 비추면, 단지 지대가 높아서 멀리서 보이는 광경이 정말 성(城)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단지는 성남 구(舊)시가지의 경사가 많은 지형적 특성상 단지 내부가 40m 정도 단차가 있어, 필로티나 옹벽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곳은 밋밋한 석재로 마감하지 않고 정말 특이하게 자연미 넘치는 이끼로 녹화를 했더라고요. 처음엔 뭔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벽면에 이끼가 살 수 있는 관수 시설을 설치해서 물을 공급하면서 이끼가 파랗게 잘 자라고 있더군요. 그 벽에는 백두산 화산석으로 군데군데 봉수대를 쌓아올려 아기자기한 맛도 있고요. 또 각동의 필로티 옹벽은 군데군데 오픈한 후에 적벽돌로 마감해 삭막한 콘크리트 구조인 아파트의 단점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오픈한 곳에 전통 문양도 넣어서 야간에는 지하 주차장 불빛이 새어나와 너무 운치 있는 그림이 펼쳐집니다.

모든 시공사들이 최고의 품질로 고객 만족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단지만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입주민을 위해 애쓴 단지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동 주택에서는 반드시 필

요한 쓰레기 분리 수거장이 그것인데요. 쓰레기 분리 수거장 역시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해 문주 형태로 변형해 단지 진·출입구에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아파트 단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옹벽으로 디자인해서 마감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 드린 것 외에도, E/V Hall 천장에 들어간 문양, Mass감을 확보한 고급스러운 주현관 디자인, 격자형 문양을 넣고 포인트석으로 마감한 측벽 옹벽, 지피 식물과 수목, 암석이 어우러진 암석원 등 구석구석 너무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많아서 오래도록 우리 단지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은 생각이 절로 생겨납니다.

GD 선정과 더불어 서울 및 주변 타 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각 조합원, 각 건설사의 설계, 조경 전문가들의 현장 방문과 언론에 수시로 비춰지는 우리 단지의 모습을 보거나 저녁 무렵, 휴일에 가족들과 함께 산책할 때는 마음 한구석이 뿌듯해지고, 입가엔 미소가 절로 생겨납니다.

웰빙이니 로하스니, 새로운 트렌드가 자고 나면 생겨나고 있는 요즘, 우리 단지는 그런 모든 트렌드를 아우르는 자연스러운 그 자체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 단지 곳곳에 적용한 새로운 자연주의 주거 명품으로 성남시,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거 공간으로 손색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